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유산: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

김애령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페미니스트 과학학과 '지식의 객관성' 문제
- III. '객관성'의 은유 바꾸기 - '상황적 지식들'의 의미
- IV. '겸손한 목적자'의 문해력
- V. '반려종과 함께' - '상황적 지식'의 생태론적 의미
- VI. 맺는 말

국문초록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은 80년대 페미니스트 과학비평의 맥락에서 제출된 개념이다. 해러웨이는 초월적 보편성과 절대적 객관성을 과학 지식의 근거로 불러내는 근대 과학의 신념체계에 맞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이고 상황적인 지식의 실제 토대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옹호한다. 부분성과 상황성은 과학지식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주어진 사태의 복잡하고 혼탁한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토대다. 이 글은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이 처음 어떤 맥락에서 출현했고, 차츰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분법적 지식 표상을 해체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 B8069796).

이 '생태학'이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주제어: 해러웨이, 하딩, 페미니스트 과학학, 객관성, 상황적 지식들, 사이보그, 양코마우스™, 겸손한 목격자, 반려증, 생태학, 에코 페미니즘

I. 들어가는 말

「상황적 지식들: 페미니즘에서의 과학의 문제와 부분적 시각의 특권」은 특정한 논쟁의 맥락에서 발표되었던 글이다.¹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가지고, 80년대 페미니스트 과학학(feminist science studies)의 '객관성' 논쟁에 개입했다. 페미니스트 과학학은 '과학적 지식의 보편성과 객관성' 주장을 비판하면서, 과학은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했다.² 특히 하딩(Sandra Harding)은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theory)에 입각해, 제도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지식은 특정 계급·인종·젠더적 관점이 매개된 지식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주장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지식의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페미니스트 과학이야말로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객관성' 개념에 머무는 한, '편견 대 객관성', '구성주의 대 실증주의'라는 '유혹적 이분법'의 함정에서 빠지게 된다고 경고한다. 인식론적 이분법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객관성의 은유를 바꾸어야 한다.³ 해러웨이는 '상황적 지식들'이라는 개념을 가

1. 해러웨이는 이 글이 1987년 3월 미국철학협회(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의 한 회의에서 하딩(Sandra Harding)의 『페미니즘과 과학(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1986)』에 대한 논평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나 J. 해러웨이, 「상황적 지식들: 페미니즘에서의 과학의 문제와 부분적 시각의 특권」,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동문선, 2002, 327쪽.

2. 이러한 관점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다. 「과학사에 관한 쿤(T. S. Kuhn)의 대안적 설명은 과학에 관한 사회적 연구를 위한 타당한 새로운 노력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사회적] 연구들은 그러한 [과학의] '합리적 재구성'에 의해 [과학지식]의 신비화가 행해졌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샌드라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박혜경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47~48쪽.

3. "객관성이라는 쓸모 있는 학설로 이끄는 기름이 발라져 있는 막대기를 기어오르려는 노력 속에서, 객관성 논쟁에 뛰어들어 나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혹은 동시에 이분법의 양 끝에 집착하였다. [...] 물론 당신이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며 막대기의 양 끝을 잡고 있다면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 그

지고, 객관성의 은유를 바꾼다. 그러면서 그녀는 '탈체현적인 투명한 시선'이라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과학의 객관성 은유를 거부하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강한 객관성'이 극복하지 못한 '반여성' 은유도 비판한다.

'상황적 지식들'은 80년대 페미니스트 과학비판의 논의 맥락에서 출현했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개념적 진화를 거듭했다. 이후의 저작들에서 해러웨이는 기술과학(technoscience) 시대⁴의 '겸손한 목격자'를 '상황적 지식들'의 주인공으로 불러냈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묘사하고자 했다. '사이보그, 양코마우스™, 반려종 등'은 해러웨이가 불러낸 기술과학 시대의 겸손한 목격자들이다. 이 형상들은 각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기술생명권력(technobio-power) 체계의 중층적 작동 양상들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전달한다. 이들을 통해, 기술문화와 자연, 기계와 유기체, 기호와 몸, 자본과 생명 사이의 경계가 내파된 오늘날, 이 세계 안의 생명체들(critters)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해러웨이는 '생태학' 또는 '상황적 지식들'이라고 부른다.⁵

과학지식의 '객관성' 은유를 비판하기 위해 도입했던 '상황적 지식들'은, 최근 해러웨이의 생태론적 세계 이해의 방법론과 연결되고 있다. '상황적 지식들'은 개체들의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상황으로부터 출발해 그것을 둘러싼 생태적 연결 관계를 읽어내는 문해력이자,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야기들이다. 해러웨이에게 이야기를 바꾸는 일은, 이 세계의 주인공을 바꾸는 일이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책임을 지면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해러웨이는 '상황적 지식들'을 재개념화하면서 기술과학 시대의 주인공

러프로 은유를 바꿔야 할 시간이다." 다나J. 해러웨이, 앞의 책, 337쪽.

4. 해러웨이를 쫓아, 이 글은 20세기 말 이후의 '크로노토프(chronotope)'를 '기술과학'으로 규정한다. "기술과학(technoscience)은 자연과 사회, 주체와 객체 간의 구별, 그리고 자연적인 것과 [...] 인공적인 것 간의 구별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 간의 구별도 흔쩍어 버린다. 기술과학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서사의 변이(mutation)를 의미[한다.] [...] [이 용어는] 기술과학의 모든 범위가 난잡하게 융합된 성질을 갖고 있음을 전달한다." 다나J. 해러웨이,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양코마우스™』를 만나다: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민경숙 역, 갈무리, 2006, 42쪽.

5. Haraway, Donna J.,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p. 97.

을 바꾸었고 그/녀의 구체적 상황에서 출발한 바뀐 이야기를 엮는다. 이 글은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이 처음 어떤 맥락에서 출현했고, 차츰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분법적 지식 표상을 해체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생태학’이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II. 페미니스트 과학학과 ‘지식의 객관성’ 문제

80년대 “페미니즘 비판들은 3세기 이상 과학이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 도덕적·정치적 자원으로서는 젠더 정치학에 호소해왔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⁶ 과학이 전제하는 “문화 대 자연, 합리적 정신 대 합리 이전의 신체와 비합리적인 감성 및 가치, 객관성 대 주관성, 공적인 것 대 사적인 것”과 같은 일군의 이분법은 필연적인 것, 또는 사실적인 것으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이분법 속에서 남성들과 남성성은 전자와 여성들과 여성성은 후자와 연결”되어 왔다.⁷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자는 ‘남성’이 되었고, ‘여성’의 배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 젠더 정치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별 분업, 그리고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학을 끌어왔다.

자연과학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고, 인종·계급·젠더적으로 편향적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단일한 논점에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를 더 일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주장은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⁸ 하딩에 따르면, 기성 과학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과학학 내부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과학적 탐구 그 자체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 여부이다. 일군의 페미니스트 과학학자들은, 기성 과학의 남성중심성과 인종·계

6. 샌드라 하딩, 앞의 책, 144쪽.

7. 위의 책, 176쪽.

8. 켈러(Evelyn Fox Keller)는 과학 분야에 만연한 젠더적으로 불공평한 고용 관행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비평에서부터, 과학적 탐구 그 자체에 개입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급진주의적 비평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스트 과학비판 이론 내에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Keller, “Feminism and Science”, *Feminism and Science*, ed. by Evelyn Fox Keller and Helen E. Longin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29~31.

급·젠더적 편향성은 과학적 탐구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개입된 사회적 편견 및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편견에 오염된 '나쁜 과학'을 교정할 가능성은 엄밀한 과학적 탐구 규범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즉 공정하고 중립적인 과학 탐구를 통해 '나쁜 과학'은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론적 관점을 하딩은 '페미니스트 경험론(feminist empirist theory)'이라고 불렀다. "페미니스트 경험론자들은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편견들은 과학적 탐구에 관한 전통적 방법론의 규범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반면, 페미니스트 경험론의 보수성을 지적하면서¹⁰ 하딩의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theory)'에서는, "과학이론 그 자체에 인식론적 혁명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나쁜 과학'은 과학의 본원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남용 내지는 오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과학 자체를, 즉 과학의 연구문제, 개념, 방법론, 서술 방식 모두를, 즉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과학학은 과학적 지식이 그 시대의 문화적 한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지적했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과학이 주장해 온 '절대적 객관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페미니즘 외부에서의 비판뿐 아니라¹¹ 내부적 토

9. 산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역, 나남, 2005, 175쪽.

10.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순전히 기술적인 의미에서 "보수적"이라는 명칭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페미니스트 연구결과들을 전통적인 지식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하며, [...] 적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지식체계에 페미니스트 주장을 단순히 "첨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두 개의 신념체계는 서로 긴장과 모순을 갖게 된다." 위의 책, 178쪽.

11. 기존의 과학적 지식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 편견에 오염된 지식이라는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비판은, 과학적 지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공격하는 정치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80년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비판은, '탈진실(post-truth)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지식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가치 폄하의 기원 중 하나로 호출되었다. 예를 들어, 리 매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쓴다.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언어가 지나치게 성차별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한 사상가는 자연의 원리를 담은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강간 지침서>나 다름없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트루스』, 김재경 역, 두리반, 2019, 174쪽. 다른 과학 저술가의 글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발견된다. "20세기 후반, 철학자와 역사학자가 [...] 과학을 환원주의라는 광기에 빠진 유럽인 백인 남성들의 과학만능주의와 기술중심주의적 전문용어로 대중을 억누르며 해석의 주도권을 차지한 상대주의적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들 중 일부는 [...] 아이작 뉴턴

론에서도, 페미니스트 과학학은 인식론적으로 '상대주의라는 위협'을 의식했다.

“페미니스트 사상이 과학사회학에 가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통찰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지적인 위협에 정치적 위협을 더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적인 위협은 과학을 순전히 사회적인 산물로 보는 데에 내재한다. 그렇게 보게 되면 과학은 이데올로기로 용해되고, 객관성은 고유한 의미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¹²

기존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을 의심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페미니스트 과학에서의 지식의 객관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해러웨이는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양가감정을 지적했다.¹³ “나쁜 과학을 폭로하고, 모든 과학의 허구적 성격을 증명하며, 진실된 사실들을 제안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들은 ‘반복된 모순’을 낳는다.¹⁴ “그 결과 통렬한 해체의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순진한 진술이 제

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를 ‘강간 지침서’라 부르기도 했다.” 마이클 셔머, 『스캐틱』, 이효석 역, 바다출판사, 2020, 23쪽. 여기서 말하는 ‘한 사상가’는 바로 샌드라 하딩이다. 하딩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강간’으로 비유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을 비판한 머천트(C. Machant)의 『자연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들 두 남성이 인용한 것과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은유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남성 과학자들에게 베이컨의 ‘강간 은유’가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면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있는 ‘기계장치 은유’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인가를 묻는 과정에 등장한 것이다. 즉 과학에 있어 어떤 젠더적 은유도 기계론적 은유 못지않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녀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썼다. “기계적인 은유들이 새로운 과학이 제공하는 설명들의 기초적인 요소라고 믿는다면 왜 젠더 은유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왜 뉴턴의 법칙들을 ‘뉴턴의 강간 지침’이라고 부르는 것이 ‘뉴턴의 기계학’이라고 부는 것만큼 분명하고 공정한 일이 아닌가?” 샌드라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147쪽. 페미니스트 과학학 또는 하딩의 인식론적 입장론이 상대주의적이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앞의 인용문들은 ‘한 사상가’ 또는 ‘그들 중 일부’라는 막연한 호칭, 악의적 발췌, 왜곡된 인용으로 페미니스트 과학학을 회화화하면서 ‘탈진실’의 기원으로 끌어온다. 이러한 읽기야말로 ‘탈진실’ 담론생산의 실천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12. Keller, “Feminism and Science”, p. 31.

13. “양면감정은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와 신념 체계로부터 떨어진 ‘그 바깥’의 어떠한 실재를 가정할 가능성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과학적 ‘사실들’을 제공하겠다는 성차별적인 주장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과학적 ‘사실들’에 호소할 때 나타난다. 해러웨이는 때로는 ‘객관주의’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던 같은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이 이런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한다.” 샌드라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179쪽.

14. 해러웨이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생물이론의 발생』은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에 실려있다. 139쪽.

안된다.” “우리는 남성적 과학을 탈신화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페미니즘은 **진정한** 지식, 혹은 적어도 **진정한** 해석에 기초를 둔 진정한 인본주의(humanism)이다.”¹⁵ 그러나 “근대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목소리로 우리의 설화를 상속받았다”는 사실, “근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부계를 통해 지식을 인계하였”으며, 더욱이 그렇게 “계승 받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며, 갈릴레오의 말이며, 베이컨의 말이며, 뉴턴의 말이며, 다윈의 말이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¹⁶ 어떻게 이런 상속과 계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페미니스트 지식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하여, 하딩은 페미니스트 관점이 “왜 남성 특유의 활동과 경험의 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자연과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를 해명한다.¹⁷ 그녀에 따르면, “여성들은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관계적인 활동을 지배하고 있어서 남성들의 특징적인 활동들에 근거를 둔 연구들이 도달할 수 없는 자연과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다.”¹⁸ 그 이유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더 억압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¹⁹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적 지식의 절대적 객관성 신화에 반대하는 동시에, 모든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강한 사회구성주의’에도 저항한다. 강한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실천은 설득이며, [...] 모든 지식은 투쟁적 권력의 장에서 응축된 흑이다. [...] 역사는 서양 문화광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이야기이다. 과학은 논쟁할만한 텍스트이고, 권력의 장이다. 내용이 곧 형식이다.”²⁰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객관성의 정체를 밝히고, 더 공정하고 더 나은 과학적 지식과 설명을 요구한다.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실천은 ‘실

15. 위의 책, 141쪽, 142쪽.

16. 위의 책, 126쪽.

17. 샌드라 하딩, 앞의 책, 184쪽.

18. 위의 책, 192쪽.

19.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헤겔의 사유와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헝가리안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루카치의 저작들에서 보인 분석의 정교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회생활에서 남성의 지배적인 지위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이해를 낳는 데 반해, 여성들의 억압적 지위는 더 완전하고 덜 왜곡된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35~36쪽.

20. 다나 J.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331쪽.

제' 세계에 대한 충실한 설명에 관여하고자 한다. "이때의 실제 세계란 부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세계이며, 한정적 자유, 적절한 물질적 풍요, 고통에 대한 겸손한 의미, 제한된 행복 등의 전-지구적인 프로젝트에 친근한 세계이다."²¹ 그런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정당한 과학적 지식을 성취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객관성'을 포기하지 못한다.²² 그리고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억압받는 자, 종속된 자의 입장이 '더 객관적인' 지식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설령 지배적 위치의 초월적 관점에 비해 종속된 자의 입장이 사태를 더 다층적으로 보게 하는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력을 낭만화하고/하거나 전용하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로부터 보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종속된 지식이라는 거대한 지하 영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쉽게 학습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종속된 자들의 자리매김은 비판적인 재-조사·코드 해독·해체·해석 등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즉 기호학적·해석학적 모드의 비판적 의문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종속된 자의 입장은 '순진한' 위치가 아니다."²³

해러웨이는 '종속된 자의 입장'도 정교한 분석적·비판적 해석을 경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래로부터 보는 방법은, 적어도 '최고의' 기술적·과학적 시각화만큼이나 몸과 언어, 시력의 중재를 다루는 상당한 솜씨를 요구한다."²⁴

해러웨이의 비판을 수용하여, 하딩의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지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강조한다.²⁵ 입장론은 과학적 신념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신념들이 사회적으로 위치지어진 것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치 상대주의'나 '인식론적 상대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21. 위의 책, 336쪽.

22. 위의 책, 337쪽.

23. 위의 책, 342쪽. 나아가 해러웨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회 혁명운동들이 과학의 개선에 매우 기여했다는 샌드라 하딩의 주장 혹은 관찰은 새로운 자리매김의 기술들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딩이 사회적·과학적 혁명들이 항상 몽상적이었다 하더라도 항상 해방적은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 바란다." 위의 글, 347쪽.

24. 위의 책, 343쪽.

25.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216쪽.

아니다. 그 인식론은 '객관적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페미니스트 입장론이 요구하는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의 조건이다. 과학의 객관주의가 탐구에 내포된 '역사적 사회적 욕망들, 이해관계들,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외면할 때,' 그것은 반쪽짜리가 된다. 그 '반쪽짜리 과학'의 객관성은 '약한 것'이다. 비판적 성찰을 포함하지 않는 과학의 객관성 주장은 불충분하다. 반면,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자격이 있는,' '강한 객관성'을 지향한다. 하딩에 따르면,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배경적 신념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포함 시킬 정도로 과학적 연구의 개념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²⁶ 그리고 "입장론은 '좋은 방법론'을 위해서 더 강한 표준을 생산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²⁷

그렇다면 '좋은 방법론'을 위해 "왜 성별의 차이가 과학적 자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페미니스트 입장론이 '이방인들'의 삶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한다는 데 있다. 이방인의 관점은 문화의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의 관계들과 사회 모순들을 더 광범위하게 간파할 수 있다. 그 관점에 '강한 객관성'의 가능성이 있다.²⁸

26. 위의 책, 227쪽. "강한 객관성이란 연구과정 안에 과학적 절차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질서의 전반적인 경향도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조주현,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대안적 페러다임 모색을 위한 해러웨이 읽기』, 『한국여성학』 14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8, 129쪽.

27. Harding, Sandra,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Feminism and Science*, ed. by Evelyn Fox Keller and Helen E. Longin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239. 기존 과학이 가치중립적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을 강조할 때, 이는 "[과학 연구의] 문제 선택에 대한 성찰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하딩은 과학실천의 맥락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하정옥,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과학과 젠더 개념: 켈러, 하딩, 하러웨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8, 64쪽.

28.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228~229쪽. 하딩의 입장론에 근거한 '강한 객관성' 주장이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체릴리(Zerilli)는 입장론은 판단의 물음으로 표현되어야 할 문제를, 인식론적 개념 안에서 정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녀는 입장론을 인식론적으로 다루는 한 상대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보며, 이 문제는 '판단의 이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Zerilli,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p. 305. 그러나 하딩의 입장론에는 "건고하고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그것은 페미니스트 과학론이 본질적으로 대항문화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거기서 우리는, 목적은 괄호 친 채 통상 방법론으로만 규정되는 과학을 그 목적과 가치 지향의 측면에서 재평가할 지반을 얻을 수 있다." 황희숙, 『페미니스트 과학론의 의의: 하딩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권, 한국여

III. '객관성'의 은유 바꾸기 -'상황적 지식들'의 의미

해러웨이는 하딩의 입장론과 달리,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는 '객관성' 개념 자체를 의문시한다. '객관성'이나 '과학'은 모두 다의적 개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라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조차 '객관성'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그런데 도대체 '객관성'이란 무엇인가?

해러웨이는 근대 과학이 이제까지 초월적 관점(perspective)에서 내려다보는 절대적 시력(vision)을 객관성의 은유로 상정해왔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시각화 기술을 통해 그 시력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초음파 검사(sonography) 체계, 자기 반향(magnetic resonance) 이미지화, 인공지능과 연결된 그래픽 조종 체계, 정사 전자 현미경,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X선 촬영 스캐너, 칼라 강화기술, 위성 감시 체계, 가정과 사무실의 VDI(단말 표시장치) 등”의 긴 시각화 기술의 목록은, “무한히 이동하는 시력”을 약속한다. “이런 과학기술적 업적 속에서 시력은 규제되지 않는 폭식이 된다.”²⁹ 시각화 기술들은 과학적 관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무한한 시력이라는 관점은 환상이며, 신을 훔내내는 속임수(god-trick)”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³⁰ 모든 시력은 체현적(embodied)이다. “이런 인공 기관 장치들은 우리 자신의 유기적 눈을 포함한 모든 눈들이 번역들과 특수한 보는 방법들, 즉 생활 방식들을 짜 넣은 능동적인 지각 체계”일 뿐이다.³¹ 그런 의미에서, 시각화 기술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무한한 이동성과 상호 변화 가능성의 알레고리가 아니라 정교한 특수성과 차이의 알레고리”이며, 이해하기 위해 번역되어야 하고 정교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들이다.³² 해러웨이는, 시력의 개입 없이 주어지는 대상은 없다는 것, 번역과 해석 작업 없이 읽을 수 있는 투명한 시각적 반영물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성철학회, 2012, 27쪽.

29. 다나 J.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339쪽.

30. 위의 책, 340쪽.

31. 위의 책, 341쪽.

32. 위의 책, 342쪽.

‘본다는 것’은, 언제나 한정된 몸으로 보는 것,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낙인 찍힌 몸’을 통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상황적 지식’의 근거이다. 여기서 “객관성은 특별하고 특수한 체현에 관한 것이지, 모든 제한과 책임의 초월을 약속하는 거짓 시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판명된다. [...] 오직 부분적인 시각만이 객관적 시력을 약속한다.”³³ 이런 맥락에서 “페미니즘의 객관성은 주체와 대상의 초월 및 분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위치 및 상황적 지식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³⁴

‘상황적 지식들’은 ‘탈체현성(disembodiment)’이라는 객관성의 그릇된 표상을 깨뜨리는 해체의 출발점이다. 그로스(Elizabeth Grosz)도 근대의 탈체현적 지식 표상이 오히려 ‘이성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면서, 인문학이나 과학이 이와 같은 ‘특정하고 문제가 많은 지식 개념’에 기대는 한,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탈체현적 표상 안에서 지식은 ‘관점이 없는 것(perspectiveless)’으로 여겨진다. “만일 지식 생산과 평가 안에서 지식의 주체가 하나의 ‘맹점(blind spot)’으로 남겨진다면, 모든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 중심에서 환원할 수 없이 비합리적인 요소로 오염될 것이다.”³⁵

모든 시력이 특수하고 체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러웨이는 이제 객관성의 은유를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황적 지식들’을 가져온

33. 위의 책, 341쪽.

34. 같은 곳. 조주현은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을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를 넘어서는 ‘페미니스트 객관성’ 주장으로 해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상황적 지식’이 담고 있는 “페미니스트 객관성(embodied objectivity)이다. 체화된 객관성은 첫째, 연구자의 시선의 부분성(partiality)을 전제하며, 둘째, 특정 장소에 위치한 지식(located knowledge)을 추구하며, 셋째, 그 지식에 대해 체화된 설명(embodied account)을 하고 그 설명에 책임을 진다.” 조주현,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해러웨이 읽기』, 『한국여성학』 14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8, 133쪽.

35. Elizabeth Grosz, “Bodies and Knowledges: Feminism and the Crisis of Reason”, *Feminist Epistemologies*, ed. by Linda Alcoff and Elizabeth Pott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3, p.192. ‘상황적 지식들’은, “장소, 자리매김, 상황 만들기의 정치와 인식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해러웨이가 체현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몸의 공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해러웨이에게 몸은 순수한 물질이 아니다. 몸은 언제나 기호와 얽혀 있는 물질이다. 육체는 물질화된 기호현상이다. 다른 한편, 해러웨이에게 ‘상황적’이라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황적이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나J. 해러웨이, 『한 장의 역사귀처럼: 사이어자 N. 구디브와의 대답』, 민경숙 역, 갈무리, 2005, 126쪽.

다.³⁶ 해러웨이에 따르면, '상황적 지식들'은 과학적 권위를 주장하는 총체화된 해석에 적대적인 만큼, 각각의 해석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에도 적대적이다. 상대주의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진리를 주장하지만,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주의는 객관성의 이데올로기들 속에 있는 총체화의 완전한 거울 쌍둥이이다. 이 둘은 모두 위치, 체현, 부분적 시각 속에 있는 이해관계를 부인한다."³⁷ 총체화도 아니고 상대주의적 진리 주장도 아닌, 하나의 구체적 상황에 처한 오염된 몸이 지식의 객관성을 위한 새로운 시각 은유가 된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시력(vision)은 언제나 보는 권력의 문제"였고, "시각화(visualizing) 실천들은 내재된 폭력의 문제"였다.³⁸ 그러므로 '보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순진하지 않다. '체현적 시력'은 모순적이고 분열된 중층적 정체성을 지니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자아의 것이다. "주체성의 지형학은 다차원적이다; 그러므로 시력도 그러하다. 인식 주체는 갖가지로 위장하고 있는 모든 위장 속에서 부분적이며,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전체이며,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며, 기원적이다."³⁹ 어느 누구도 특권적 위치들에 동시에 존재할 방법은 없다. 또한 어떤 특권적 위치에서도 전체로 존재할 방법도 없다. 그것은 '종속된 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속된 입장에서도 '완전하고 총체화된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종속은 존재론의 근거가 아니다." 다만 '시각적 단서'일 뿐이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체현적 부분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시력은 환상이고 왜곡이며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객관성의 추구 또한 환상이고, 왜곡이며, 비합리적이다. 구체적인 지식은 언제나 상황적이며 부분적이다. 그리고 그 부분성들은 주체가 그러한 것처럼, 다양한 관계들, 중층적 요소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 관계가 '상황적 지식들'의 부분성들을 엮을 수 있게 한다. '상황적

36. 다나J.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338~339쪽.

37. 위의 책, 343쪽.

38. 위의 책, 344~345쪽.

39. 위의 책, 346쪽.

지식'에서 "합리적 지식을 주장하기 위한 경청 조건은 보편성이 아닌 부분성이다."⁴⁰ 해러웨이는 '상황적 지식들'의 부분성들을 연결 관계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 과학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는 "이중적 시력을 가진 복수적 주체의 과학", 그들 사이의 "해석, 번역, 말더듬기,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해된 것들에 대한 과학과 정치"를 추구한다.⁴¹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과학은 '상황적 지식들'의 상호번역이다. 그리고 "번역은 언제나 해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부분적이다. 여기에 대화·합리성·객관성의 근거가 있다."⁴² 따라서 합리적인 지식은 상황으로부터의 '이탈(disengagement)'을 가장하지 않는다. '상황적 지식들'은 "해석자들과 압호 해독자들의 '장(場)'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권력에 민감한 대화"를 통한 "비판적 해석 과정"을 따라가는 '합리적 지식'이다.⁴³

'상황적 지식들'이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해러웨이는 "지식 프로젝트 속에서 만나는 세계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실체"라고 단언한다. "세계는 스스로 말하지도, 주인 압호 해독자를 위해 사라지지도 않는다. 세계의 코드들은 읽혀지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도 않는다. 세계는 인간화를 위한 원료가 아니다."⁴⁴ 추구되어야 할 독립적 실체로서의 객관적 대상은 없다. 오직,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상호작용하는 상황들이 있을 뿐이다.⁴⁵

40. 위의 책, 350쪽.

41. 같은 곳.

42. 위의 글, 350~351쪽. 이어서 해러웨이는 "객관성은 권력에 민감하지만, 복수주의적이지 않은 '대화'라고 쓴다. "이와 같은 '상황적 지식들'의 부분성은 대화와 연대를 강조하는 부분성이며 상대주의의 부분성과 다르다. 지식 생산과 연관된 위치성과 이해관계, 사회적 관계들을 삭제하기보다 드러냄으로써 부분성은 연결성을 볼 수 있게 하고 대화의 공간을 만든다." 정연보,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상황적 지식들'의 재구성을 위하여: 파편화된 부분성에서 연대의 부분성으로』, 『한국여성철학회』 19권, 한국여성철학회, 2013, 71쪽.

43. 다나J.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352쪽.

44. 위의 책, 356쪽.

45. 이 자리에서 해러웨이는 에코 페미니즘을 소환한다. 해러웨이는 여성 정체성의 본질주의에 기반한 에코 페미니즘 주장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설명 가능성(책임, accountability), 정치, 에코 페미니즘' 안에서, '상황적 지식들'의 부분적 연결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법을 배울 희망을 찾는다. 위의 책, 359~360쪽.

IV. '겸손한 목격자'의 문해력

'상황적 지식들'은 페미니스트 과학학에서 '객관성'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출현했지만, 전통적 의미의 객관성 도식, 즉 주체와 객체 사이의 반영적 관계라는 도식에서 벗어난다. 해러웨이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상황적 지식'은 결코 지식의 총체화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과학은 서구-백인-중산층-지식인-남성인 '겸손한 목격자(modest witness)'의 '상황적 지식'을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과학적 지식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것이었다.⁴⁶

'겸손한 목격자'는 서구 근대의 과학서사가 만들어낸, 투명한 객관성의 주체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과학실험의 주체는 '겸손한 목격자'여야 하는데, "겸손함을 가시화하기 위해, 그 사람, 즉 실재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목격자는 눈에 보여서는 안 되며, 자기 비가시성(self-invisibility)이라는 기이한 관습에 의해 구축된 강력한 '표시가 없는 범주(unmarked category)'의 거주자이어야 한다."⁴⁷ 중립적으로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듯 인종·계급·젠더적 표지를 감추는 이 '겸손한 목격자'의 가장(假裝)된 비-가시성이 '근대·유럽·남성적' 과학지식의 객관성을 보증해 온 것이다.

해러웨이는, 근대의 과학서사 안에서의 '겸손한 목격자' 형상(figure)⁴⁸을, 20세기 말에 적합하게 재형상화(re-figuration)하는 작업에 착수한다.⁴⁹ 그러면서 해러웨이는, '서구-백인-중산층-지식인-남성'의 특정한 '상황적 지식'을 초월적이고 총체적인 객관적 지식으로 전환하면서 탈체현을 가장했던 근대 과학

46. "겸손한 목격자라는 용어를 스티븐 새핀과 사이몬 새피(1985)의 중요한 저서 『리바이어던과 공기펌프: 흙스, 보일, 그리고 실험적 삶』에서 따왔다." 해러웨이,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양코마우스™를_만나다』, 76쪽. 해러웨이가 '겸손한 목격자'를 어떻게 재형상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제21권, 2014, 74~76쪽을 보라.

47. 같은 곳.

48. figure'는 비유 또는 문채(文彩)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 수사학적 개념을 '형상'으로 번역한 이유는, 해러웨이가 'figure'를 어떤 사태를 '형상화(figuration)'하는 것, 즉 이야기로 만드는 것과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49. 김애령, 앞의 글, 76쪽.

의 '겸손한 목격자' 자리에, 기술과학 시대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불순하고 오염된 '퀴어(queer) 괴물들'을 불러모은다.

“나의 겸손한 목격자 [...] 그/녀는 의심이 많고,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으며, 아는 것이 많고, 무지하며, 염려하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다. [...] 그/녀는 기술과학 세계를 포함하는 그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법을 보다 충실하게 알려주는 혼합된 읽고 쓰는 능력[문해력, literacy]과 차별 의식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⁵⁰

해러웨이가 불러낸 '겸손한 목격자들'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상황적 지식들'을 생산한다. 해러웨이가 가장 먼저 불러낸 겸손한 목격자는 '사이보그'였다. '사이보그' 형상은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실재와 이야기라는 이분법적 경계가 이미 해체되었고, 그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폭로하면서 등장했다.⁵¹ 20세기 말 기술과학적 매트릭스 안에서 '사이보그' 형상은, 점차 발달하고 이행하면서 내포를 확장했고, 가끔 다른 형상들과 치환되기도 했다.⁵²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의 상황적 지식을 규정하는 크로노토프(chronotope)⁵³는, “압축, 융합, 내파”의 시간성과 “세계화”라는 공간성의 결합이다. 압축되고 내파된 시간과 세계화된 공간 속에 놓인 사이보그가 드러내는 '상황적 지식'은,

50. 다나J. 해러웨이, 앞의 책, 41쪽.

51. “우리의 시대이며, 신화적 시기인 20세기 말에 위치한 우리들은 모두 기계와 유기체의 이문화되고 제작된 잡종인 키메라(chimera)이다. 요컨대 우리들은 사이보그이다. 사이보그는 우리의 존재론이다. 사이보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치를 준다.”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268쪽.

52. 해러웨이는, 형상의 '발달, 이행, 내포 등'은 '비유적 리얼리즘(figural realism)'의 고유한 성질들이라고 말한다. '비유적 리얼리즘'은 해러웨이가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에게서 가져온 용어이다. 화이트는, 어떤 실재를 전달하기 위해, 목격자에게는 생생한 비유적 표현으로 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사를 구성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로부터 이 개념을 차용한다. Hayden White, “Figural Realism in Witness Literature”, *Parallax*, vol. 10, no. 1, 2004, pp. 113~124. 그런가 하면,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다른 형상들과 치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천 년 말의 씨앗, 칩,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폭탄, 태아, 인종, 생태계 등” 뿐 아니라, 앙코마우스™나 반려종과 같은 새로운 형상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모두 '사이보그의 자매들'이다. 다나J. 해러웨이,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_여성인간©_앙코마우스™를_만나다』, 57쪽.

53. “문자 그대로 크로노토프는 화제의 시간 혹은 시간성이 조직되는 토포스(topos)를 뜻한다. [...] 크로토스는 언제나 토포스와 서로 얽혀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바호친(1981)이 시간성을 조직하는 비유로 규정한 크로노토프 개념 속에서 풍요롭게 이론화하였다.” 위의 책, 108쪽.

‘기업화된 생명, 브랜드명이 된 종(種), 그리고 가격이 된 비유들’의 의미를 읽어낼 문해력(literacy)을 제공한다.⁵⁴

예를 들어, ‘겸손한 목격자’ ‘앙코마우스™’는, 그 존재 자체로 기술과 생명, 텍스트와 물질, 신화와 몸이 복잡하게 얽힌 중층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앙코마우스™’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종양 유전자인 앙코진(oncogene)을 이식받은 실험용 쥐의 상표명이었다. 그/녀는 다국적 기업 뒤퐁(Dupont)사(社)의 실험실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스스로-이동하는 살아있는 동물”이자 “세계에서 첫 번째로 특허를 받은 동물”이며, “초국적 자본의 교환 회로에 놓인 평범한 상품”이자 “과학 도구”이다.⁵⁵ 이 ‘겸손한 목격자’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날의 생명기술권력 체계하에서 어떻게 기계와 유기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상품과 생명이 결합 되는지를 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동물의 몸에서 초국적 생명공학 기업의 축적 장치와 세계화된 자본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 나아가 이 작동 체계 전체를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희생과 인류의 건강한 미래’라는 구원 서사⁵⁶, 그리고 그 서사 뒤에 감추어진 인종과 계급의 문제⁵⁷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앙코마우스™’는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해러웨이가 그/녀를 ‘겸손한 목격자’로 소환한 이래로, 그/녀는 이미 브랜드가 된 종(種), 상품이 된 생명체를 가시화하는 가장 적절하고 대표적인 형상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나아가, 이 형상의 ‘상황적 지식’이 작금의 생명기술권력의 작동체계 안에 서로 연결되어 뒤엉켜 있는 ‘자본·기술·시장·생명·계급·인종·신화...’의 생태론적 구조와 역사를 묘사한다.

54. 위의 책, 60쪽.

55. 위의 책, 176쪽.

56. “그/녀[앙코마우스™]는 우리의 희생양이며,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문화적 특권을 가진 그런 종류의 구원, 즉 ‘암 치료’를 약속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의미하며 규정한다.” 위의 책, 175쪽.

57. 앙코마우스™는 유방암에 걸린 혹은 걸릴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이다. 그러나 “1980년과 1991년 사이에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죽은 사망률이 21% 증가한 반면 백인 여성이 유방암으로 죽은 사망률은 그대로 일 때, 앙코마우스™는 무엇을 제공 하는 것인가?” 위의 책, 237쪽.

V. '반려종'과 함께 - '상황적 지식'의 생태론적 의미

'반려종(companion species)'은 「사이보그 선언문」이후 20여 년 만에 등장한 '사이보그의 자매'다. "사이보그와 반려종 각각의 형상은 [...] 둘 다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탄소와 실리콘, 자유와 구조, 역사와 신화, 부자와 빈자, 국가와 주체, 다양성과 고갈, 근대와 근대 이후, 자연과 문화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함께 묶어준다."⁵⁸ 해러웨이는 "공-주거(co-habitation), 공-진화(co-evolution), 함께 성장하는 것(concrescence), 체현적인 이종(異種)간(cross-species) 사회성"의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 '사이보그'와 함께 '반려종'을 불러낸다.⁵⁹ 그것은 "[반려종인] 개들이 지금 시대인 제3 천년에 기술정치적 덤불을 뚫고 나가는데 [나의 오랜 분신인 사이보그보다] 더 나은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⁶⁰

「반려종 선언」은 '미즈 카옌 페퍼(Ms. Cayenne Pepper)'라는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된다. 이 '소중한 타자(significant other)'와의 구체적인 관계로부터, 해러웨이는 두 종간의 관계 맺기와 의사소통의 성공과 실패, 공진화의 실제,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나아가 미국의 반려견 문화, '순종'이라는 만들어진 혈통의 역사, 거기 개입된 인종학적 수사(修辭), 탈식민주의적 이주의 역사, 도시화와 산업화, 미국의 '자연보호' 정책, 남미의 '거리의 개들'과 그들의 미국 입양과정 등등의 이야기를 엮는다.⁶¹ 이 '상황적 지식'들은 한 '소중한 타자'의 시선에서 유래한 것이다. 카옌 페퍼와의 관계는 "하나의 반려종을 만들려면 적어도 두 개의 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그것은 두 개의 분리된 종들의 연결이 아니라, 서로의 체액과 유전자를 섞는 공진화의 과정이다. 이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깨우침을 시작으로 "거미줄을 짜듯이 바깥으로 빙빙

58. 다나J. 해러웨이, 「반려종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6, 119~120쪽.

59. Donna J. Haraway, "Cyborgs to Companion Species: Reconfiguring Kinship in Technoscience", *The Haraway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4, p. 297.

60. 위의 책, p. 298.

61. "나 같은 사람들은 함께 사는 개들을 통해 토착민의 주권, 목축 경제 및 생태적 생존, 육류 산업 복합체의 급진적 개혁, 인종 정의, 전쟁과 이주의 귀결, 기술문화의 제도와 맞닿게 된다." 다나J.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236쪽.

돌아 뺏어나가”면서, 종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제작(sympoietic)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고 ‘인류세(anthropocene)’의 시대, 위기에 처한 생명체들(critters)⁶²의 ‘자연문화(natureculture)’적 세계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갈 ‘긍정의 생명정치’를 구상하기까지, “존재론적 안무(ontological choreography)”를 확장할 수 있다.⁶³

‘반려종’은, 이전의 다른 ‘자매들이 보여주었던 ‘상황적 지식들’보다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지식에 주체와 객체의 분리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제 해러웨이는, ‘구체적인 것’을 ‘실제의 사건(actual accasion)’으로 정의하는 화이트헤드(Whitehead)를 인용하면서, “실재(reality)는 능동태 동사”라고 말한다. “모든 존재자는 관계에 선행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 세계는 운동 속의 매듭이다. [...] 미리 구성된 주체나 객체는 없으며, 단일한 근원이나 단일한 행위자, 최종 목적과 같은 것은 없다.”⁶⁴

‘반려종’의 ‘상황적 지식들’은 결국 이 세계 안에서 각각의 존재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다층적인 연결망 안에서 과정적 존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반려종’은 “우리는 공동제작적 체계”라는 것, “우리는 쉽 없이 더불어-되기(becoming-with)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차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가 확실해진다. ‘겸손한 목격자’의 ‘상황적 지식’은 부분적이고 과정적인 앎이지만,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들에 대한 포착이자 묘사이다. ‘상황적 지식들’이라는 개념은,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 대상에 대한 주체의 반영적 투사가 아니라, 복잡한 연결 관계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이야기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 세계들, 지식들, 생각들, 갈망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과 더

62. “critters(크리터)는 주로 미국 남부에서 쓰이는 일상어로 해충을 뜻한다. 해러웨이는 creatures라는 용어를 오염시키는 의미에서 생물, 식물, 동물, 인간, 비인간 등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 b, 2020, 76쪽, 각주 37.

63. 위의 책, 129쪽, 267쪽, 125쪽.

64. 위의 책, 123쪽. “이제껏 범주로 규정되어 온 ‘주체, 객체, 종류, 인종, 장르, 젠더’ 등도 모두 관계의 산물이다.” 김예령,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 92호, 2020, 20쪽.

불어 연결하고, 알고, 생각하고, 세계를 만들고, 스토리들을 이야기한다. 이 땅의 생명체들(critters)은 모두 그렇게 한다. 우리의 거만한 다양성, 그리고 범주를 깨뜨리는 종(種)의 분화와 매듭짓기들 안에서 [그렇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물질주의(materialism), 진화, 생태학(ecology), 공동제작(sympoiesis), 역사, 상황적 지식들, 우주론적 퍼포먼스, 과학 예술 세계화들(science art worldings), 또는 애니미즘이라 할 것이다. [이 리스트는] 결국 이 각각의 어휘들에 의해 주술에 걸린 오염들과 감염들로 완결될 것이다.”⁶⁵

VI. 맺는 말

반려종의 ‘상황적 지식들’은 부분적이며 체현적인 구체성 안에서 ‘더불어 되기’의 과정을 기록한다. 여기에는 주체와 분리된 대상도 없고, 대상에 선재(先在)하는 주체도 없다. 따라서 주체가 반영하는 ‘객관성’도 없고, ‘강한 객관성’을 주장할 유일한 ‘입장’도 불가능하다. 해러웨이는 훗날, 입장론자들과 달리 자신의 기획은 지식의 “불안정한(non-stable) 토대들”을 생산하고자 했다고 밝힌다.⁶⁶ 해러웨이는, 이 기술과학 시대의 문제들을 드러낼 지식 생산은 오직 오염된 몸들, 혼종적인 퀴어 ‘겸손한 목겨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황적 지식들’은, 80년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맥락에서, 어떻게 기존의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성을 비판하면서도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페미니스트 과학의 ‘객관적 지식’을 주장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계속 진화했고, 이제 생명기술권력의 현실을 포착하고 묘사할 ‘문해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가 명확해진다.⁶⁷ ‘상황적 지식’은 구체적인, 주변화된,

65.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p. 97.

66. Margret Grebowicz and Helen Merrick, *Beyond the Cyborg: Adventures with Donna Haraw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 48.

67. “여신보다는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해러웨이는 여성 정체성을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했던 에코 페미니즘을 비판했다. 현남숙은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해러웨이가 본질주의적 에코 페미니즘을 비판하지만, 그녀의 생태 진화적 문명 기획과 에코 페미니즘의 지향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남숙, 「여성, 사이보그 그리고 생태: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33호, 2008, 87~111쪽.

중층적인 문제들로 둘러싸인 '뭉'으로부터, 그것을 관통하는 다층적인 생명-자본-기술-권력의 망들을 읽어낸다. 그것은 주체와 분리된 대상적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제작'의 전 과정에 얽힌 관계들을 그려낸다. 그렇게 '상황적 지식'은 과학 서사의 주인공을 바꾸고, 탐구하고 추구해야 할 이야기를 바꾼다. 이야기를 바꾸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는 관점,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 세계의 전망을 바꿀 수 있다. 해러웨이는, "개체 더하기 환경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역동적인 접촉 지대로 이루어진 생태계의 그물들만 존재한다"고 말한다.⁶⁸ 이 복잡성을 읽어낼 가능성은, 오직 구체적이고 부분적이며 체현적인 '상황적 지식들'에 있다.

68. 다나J.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308쪽.

참고문헌

-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제21권, 한국여성철학회, 2014, 67~94쪽.
- _____,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 92호, 2020, 7~35쪽.
- 다나 J.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동문선, 2002.
- _____, 『한 장의 앞사귀처럼: 사이어자 N. 구디브와의 대답』, 민경숙 역, 갈무리, 2005.
- _____, 『검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_여성인간©_앙코마우스™를_만나다: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민경숙 역, 갈무리, 2006.
- _____,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6.
-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트루스』, 김재경 역, 두리반, 2019.
- 마이클 셔머, 『스킵티』, 이효석 역, 바다출판사, 2020.
- 샌드라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박혜경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역, 나남, 2005.
- 이블린 폭스 켈러, 『과학과 젠더: 성별과 과학에 대한 제 반성』, 민경숙·이현주 역, 동문선, 1996.
- 정연보,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상황적 지식들'의 재구성을 위하여: 파편화된 부분성에서 연대의 부분성으로」, 『한국여성철학』 19권, 한국여성철학회, 2013, 59~83쪽.
- 조주현,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해러웨이 읽기」, 『한국여성학』 14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8, 121~151쪽.
-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 b, 2020.
- 캐롤린 머천트, 『자연의 죽음: 여성과 생태학, 그리고 과학혁명』, 전규찬·전유경·이윤숙 역, 미토, 2005.
- 하정옥,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과학과 젠더 개념: 켈러, 하딩, 해러웨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8, 51~80쪽.
- 현남숙, 「여성, 사이보그 그리고 생태: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

- 으로」, 『사회이론』33호, 한국이론사회학회, 2008, 87~111쪽.
- 황희숙, 「페미니스트 과학론의 의미: 하딩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8권, 한국여성철학회, 2012, 5~37쪽.
- Grebowicz, Margret and Helen Merrick, *Beyond the Cyborg: Adventures with Donna Haraw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Grosz, Elizabeth, “Bodies and Knowledges: Feminism and the Crisis of Reason”, *Feminist Epistemologies*, ed. by Linda Alcoff and Elizabeth Pott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3, pp. 187~215.
- Haraway, Donna J., “Cyborgs to Companion Species: Reconfiguring Kinship in Technoscience”, *The Haraway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4, pp. 295~320.
- _____,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 Harding, Sandra,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Feminism and Science*, ed. by Evelyn Fox Keller and Helen E. Longin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235~248.
- Keller, Evelyn Fox, “Feminism and Science”, *Feminism and Science*, ed. by Evelyn Fox Keller and Helen E. Longin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28~40.
- White, Hayden, “Figural Realism in Witness Literature”, *Parallax*, Vol. 10, No. 1, 2004, pp. 113~124.
- Zerilli, Linda M. G.,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Sings*, Vol. 34, No. 2, 2009, pp.295~317.

Abstract

The Legacy of Feminist Science Studies: The Ecological Meaning of Haraway's "Situated Knowledges"

Kim, Ae-Ryung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onna Haraway's "situated knowledges" was presented in the context of feminist critique of science in the 80s. Haraway, not only recognizes the inevitably partial and situational knowledges, but defends it against the fantastic belief system of modern science that brings forth transcendental universality and absolute objectivity as basis for scientific knowledge. Partiality and situationality are not grounds to deny the possibility of valid scientific knowledge, but rather a foundation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and turbid networks of concrete and empirical fact.

This article will first introduce the background of the debate about 'objectivity' on feminist critique of science, where the concept of Haraway's "situated knowledges" first appeared, and explain why the concept of "situated knowledges" become "a work of changing metaphor," and further "the work of changing the entire narrative of scientific knowledge". Recently, the concept of "situated knowledges", which was introduced as the 'literacy' required by technoscience, are connected to Haraway's bio-eco-politics that views the relationship of ecological connections among all critters. This article studies the meaning of ecological turn of such situated knowledges, and observes how Haraway's techno-eco-feminist project views and forecasts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echnoscience in "different" manner.

Keywords: Donna Haraway, Sandra Harding, Feminist Science Studies, Objectivity, Situated Knowledges, Modest Witness, Cyborg, OncoMouse™, Companion Species, Ecology, Eco-Feminism

논문 투고일 : 2021년 03월 19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4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4월 12일